

환경사업의 代父

이달우(李達雨) 회장 -中-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3. 유명한 Audio mania들이 알아주는 이달우 회장의 Audio System

지난 호, 이 칼럼에서 10년 전, 이달우 회장께서 노용희, 노재식, 이승무 박사와 필자를 제주도로 초청해, 극진한 대접과 이달우 회장께서 제주도에 조성해 놓은 놀라운 '자연공원'에 대해서 썼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놀라움'은 이달우 회장님의 '서귀포' 빌라 별장에서 본 Audio system이다. 이달우 회장께서 대단한 Audio mania라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었지만, 별장의 Audio system을 보고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넓은 벽면 하나 가득 채워진 Audio system은 가히 Audio 기기(器機)의 최고봉이었다. 어림잡아 10억 원은 넘을 시스템이다. 스피커만 해도, 한국에 5조(組) 정도만 있다는 'Acapella'의 horn 스피커인 'Violon'이다.

살펴본 cable도 최상급이다. 언 듯 보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조(組)에 3백만원이 넘는 'Tara labs air' cable 급이 기기를 연결하고 있었다. cable 하면, 기기의 전기 신호를 이어주는 전기선(電氣線)인데, 전기선이 그 정도면 Audio system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m Plifier나 기타 Automatic

Voltage Regulators나 CD Player 그리고 Turntable 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달우 회장께서는 오디오 set 뒤 벽면의 전기공사에 많은 공을 기우리셨다고 말하시는데, 보통의 Audio mania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별장, 그것도 1년에 얼마 머물지 않으실 별장의 Audio system이 이 정도면, 서울 본가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일까? 잘은 몰라도 스피커는 수 억짜리 'Goldmund' (Swiss 제품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가 아닐까 상상해 본다.

"그러면 오디오 한번 구경할까요."하며, 이달우 회장께서 LD 한 장을 Laser Disc Player에 걸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광이 커다란 TV 화면에 나타나고 여자 해설자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 대단한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곧 이어, 이달우 회장께서는 CD 한 장을 Player에 올려놓았다. Schubert의 실내악곡이 말만 들었던 'Violon' 스피커에서 울려 나온다.

팔이 있을 때의 대학시절, Violin lesson으로 용돈을 충당하고 그 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필자의 Audio system은 백만 원 정도의 Yamaha amplifier에 'Tannoy' vintage 스피커 system으로 이달우 회장님의 'Violon' 스피커 한 짝 값도 안 되는 초라한 것이어서, 부러움 반, 시샘 반으로 선배

들이 옆방에서 뒤풀이 술잔을 기우리는 동안, 필자는 방에 남아, 이달우 회장님의 음반(音盤)들을 살펴보았다.

좋은(귀한) 음반은 열심히 자료를 뒤지고, 많은 정보를 듣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바쁜 이 회장께서 그럴 시간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음반에서는 필자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에서였다.

그러나 이달우 회장님의 음반(주류를 이르는 CD)을 자세히 보고, 이달우 회장님의 귀(listening)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그 혼한(?) Symphony나 Opera곡은 없고, 모두 실내악(室內樂)곡 뿐이었다. 보통의 귀가 아니라는 증거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이달우 회장님의 Audio system에 감탄하는 필자에게 '노재식' 박사님이 물었다.

"바로,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몇 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떻게 다르누?"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例)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오래 전의 대화였지만, 스피커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어서 전부터 대답을 정리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스피커는 비쌉니다. 그러나 비싼 스피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즉,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 천만 원짜리의 스피커와 수 만 원짜리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는 사람의 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귀로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죠.

가끔 음악평론가들이 'A' 스피커와 'B' 스피커는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평론가들



▲ 제주도에서의 이달우 회장(우)과 박창근 위원장(좌)

이 선호하는 음색, 취향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대 성능비라는 것이 있어서, '스피커는 동일 가격대를 훨씬 뛰어넘는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할 수는 있겠죠.

보통, High end 스피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도 보급형 스피커를 만듭니다. 그런데 High end 메이커라고 반드시 보급형 스피커도 잘 만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Camera로 예를 들면, 아주 맑은 날, 어떤 풍광을 찍는데, Camera의 최고봉인 'Leica' Camera로 찍었거나, 만 원짜리 1회용 Camera로 찍거나, 찍은 사진을 8×10 정도의 크기로 인화(印畵)했을 때는 사진 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인화 크기를 늘리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큰 차이는 맑은 날이 아닌, 새벽이나 안개 속, 또는 묘한 빛의 디테일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Leica'로 찍은 사진과 만 원짜리 1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아니, 새벽 안개속의 풍광(風光)은 1회용 카메라로는 찍지도 못합니다. 렌즈 차이 때문입니다. 비싼 렌즈는 좋은 원석(原石)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간, 좋은 스피커는 음의 미세한 부분까지 재현하고,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등, 예민한 귀를 위해서 그리고 완벽한 소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파란 색의 아름다운 'Violon' 스피커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던 Schubert의 현악3중주 소리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 스피커에서 Wagner와 Mahler의 소리는 어떻게 울려 나올까? 궁금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계속)